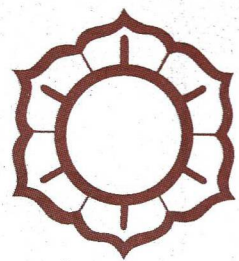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2005년  
2월 1일  
화요일  
제64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은들은 홍수를 만나면 역상을 하고 개인은 역경에  
처하면 항상을 한다. 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않고 수  
원은 일시라도 맺지 말라. 상과 벌은 형상은 없으나  
회복은 온 것이다. 사람의 칭찬보다 진리의 복덕성  
이 더욱 크다. 마음이 광대하면 행복도 또한 크나,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또한 불만중에서 생  
활한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총지중 을유년 신년하례법회와 퇴임식



총지중 스승 및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을유년 한 해동안 화합과 교화활성화를 다짐하고 있다.

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승단의 화합과 교화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하며, 종단의 스승님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인고하여 끊임없는 용맹정진과 결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반야바라밀과 법력을 길러서 지구상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기상 이변과 재난속에서 황폐화된 인간의 마음을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을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자신이 잘났다는 아만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지중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전국 스승과 종단 종사자들이 동참하여 을유년 새해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

여 서로간의 건강과 평온을 염원하는 부처님에 대한 예배와 효강 종령예하와 스승들간의 경배, 종령 법어, 통리원장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수처 작주(隨處作主)의 말을 인용하면서 가

고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신심은 더욱 깊어지고 즐겁고 신바람나는 신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대의 급변하는 흐름에 따라 교화방편과 우리들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구태연하게 과거의 의식속에 사로잡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한다면 종단의 발전과 중생구제는 희미한 안개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 승단도 남의 허물만을 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스스로의 허물을 밝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활성화되고 청정한 수행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년하례법회 후 실보사주교이며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인 해암, 삼밀사주교이며 중앙종의회 의장인 의강, 선림사주교인 보원 정사의 퇴임식이 열려 그동안 종단발전과 중생교화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였다.

### 총무부장에 선도원전수

종단 승직자 인사발령

총지중은 지난 1월 14일자로 법성사주교인 시각화전수를 정각사주교, 만보사법성정사, 정일해전수를 정각사주교, 근무로, 벽통사 환수원전수를 시법사주교로, 밀인사 원송정사, 인법계전수를 삼밀사주교, 근무로, 시법사 지성정사, 승요제전수를 만보사주교, 근무로, 실지사 선도원전수를 총지사주교, 총무부장으로, 총지사 법등정사, 인덕심전수를 밀인사주교, 근무로, 개천사 지광정사, 수심정전수를 건화사주교, 근무로, 정각사 경원정사, 정법수전수를 개천사주교, 근무로, 건화사 정일심전수를 법성사주교로, 단음사 묘심해전수를 벽통사주교로, 정각사 안성정사, 유가해전수를 단음사주교, 근무로, 통리원 록경정사, 밀인사 법수연전수를 실지사주교, 근무로 각각 인사발령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인사발령에 있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발령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종단발전과 중생교화에 장애가 없도록 인사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원만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리라 보며, 입장소멸과 소원성취, 재난소멸을 위해 선한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피며, 각자 사원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용맹정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변화와 개혁으로 교화활성화” 불단장엄, 항마염송, 만다라 전국사원봉안

총지중(총지중 우승)은 1월 13일 서울 통리원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총지중의 불단과 의식, 의례에 대한 변화와 개혁으로 교화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날 승단총회는 신년하례법회 후 밤12시까지 장시간 동안 종단의 주요 정책 가운데 ▲불단장엄 ▲만다라 전국사원봉안 ▲의식과 의례의 개편 ▲공식불공식 첫째시간에 모든 교도들의 항마염송 등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불단장엄은 법장원의 연구발표에 대해 반대위원이 제시되어 우선 한 개 사원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의결하였다. 또한 승단과 교도의 여론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전국사원 만다라봉안은 총지중 본산인 총지사에 봉안된 만다라 봉안된 지 2년여의 기간이 흘렀지만 사법을 관장하는 종령의 잇따른 열반으로 인해 전국사원에 봉안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에 효강 종령의 종령추대로 전국사원에 만다라를 봉안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승단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사원에 봉안하는 안건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사원의 만다라 봉안시 반드시 종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며, 종단의 감독하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공식불공 첫째시간의 항마염송에 대해 4월 춘계강공기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후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수정한 후 4월말에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불사의식과 의례의 개편에 대해 략자관 후 법구사용, 불공시간 단축, 불사의식의 장엄화, 다양한 불사의의례의 개발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안이 마련되지 않아 차후 연구·검토 후 시행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정종조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종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원정종조탄신일을 종단공식경축일로 제정하여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불사를 봉행하기로 하였다.

### 새해대서원정진불공 “한해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발원”



부산 정각사에서 수백명의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소멸과 소원성취, 경제발전을 서원하는 새해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중(총지중 우승)은 지난 1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사원에서 새해대서원정진불공을 봉행하였다. 새해대서원정진불공은 창종 당시부터 한 해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 재난소멸을 서원하는 불공으로 총지중에서 가장 큰 불공이다. 이 불공기간에는 종단의 모든 종사자 및 교도들은 일체 업무를 중단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사본정진불공을 한다. 또한 이 불공기간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법문을 통해 ‘내가 부처’라는 자성불을 밝히고,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며 자신의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불공을 한다.

새해대서원정진불공중에 우승 통리원장은 “불지는 연기법칙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은 인연에 의해 과를 받게 된다. 내가 말한 한 마디, 내가 행한 행동 하나 하나의 인연에 의해 과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과법을 알고 항상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업을 통해 전생부터 내려온 업장을 소멸하도록 정진불공해야 한다. 새해불공은 불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불공기간동안 참회한 마음,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여 한 해동안 생활하는 데 있어 지침서로 다듬어갈 때 진정한 불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며 선한 마음자리 주인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죽비소리

어떤 사람이 남을 비방하면 입에서는 칼날이 돌아 입으로 악한 것을 말한 죄를 받아 도리어 제 몸을 베고 다친다.

만약 비방해야 할 곳에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곳에 비방한다면 나쁘게 말한 것의 허물이 더 무거우니 입의 허물이 무거워 안온하지 못하리라

『대부탄경,중에서』



##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돌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미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 총기 34년 2월 19일 ~ 총기 34년 4월 8일  
장소 : 불교 총지중 전사원  
대상 : 모든 불자 및 총지중 교도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 사설

## 총지중 중흥의 기치를 올리다

올해로 우리 총지중은 창종 33주기를 맞고 있다. 사람으로 치자면 성인으로 한창 활기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발전 속도는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뚜렷한 돌파구 또한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년 1월의 승단 총회를 통하여 종단의 중흥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승단의 결의와 종령의 재가에 의하여 내려진 이번 결정은 전국 사원 중에서 한두 곳을 선정하여 우리 종단이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원을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범사원의 선정은 집행부 및 관련 기관의 협의하에 결정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 마련은 통리원집행부와 법장원, 그리고 해당 주교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승단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가운데에서 시범 사원의 운영을 결정할 것과 함께 미래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불단 문제가 거론되었다.

불단의 장점은 그 동안 줄기차게 제시된 사안으로서 종단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본 종단에 입교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법장원은 교리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을 고려하여 밀교종단으로서의 정통성을 표방하고 현대적 불교종단이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년간에 걸쳐 꾸준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여 밀교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응변약으로 제생의쇄야 한다는 원정 종조의 유지를 계승하는 양면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승직자들은 종단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방안이라는데 동의했다. 더구나 보문총체총덕인 대일여래의 상징으로서 본존을 삼는 것은 교리상 하등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두 곳의 시범 사원에 불단의 장점과 함께 현대적인 교화방편을 시험해 보는 것은 교도의 노령화와 함께 교세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금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동안 우리 종단은 30년 동안 교화방편상의 어떠한 변화도 없이 창종 초기의 그 모습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중생들의 근기가 달라지고 사회환경이 변모된 지금도 30년 전의 교화방편을 고집하는 것은 성인인 된 지금도 어릴 적 옷을 벗어버리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생각이다.

북한이 우리식대로 살자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고집하다가 세계 최빈국의 하나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종단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루한 고정관념에 얽매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쇠락의 운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전 승단의 중지를 모아 금번과 같은 획기적인 조치와 단안이 내려진 것은 종단의 중흥을 위하여 만사지단이 있으나 실로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조만간에 한두 곳의 시범 사원이 선정되어 운영되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렵게 시작된 금번 시범사원 운영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 승단과 교도들의 일치단결된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만에 어렵게 올려진 중흥의 깃발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승직자와 전국의 교도 및 종무원들은 종단의 사활이 걸린 이번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세계만방에 우뚝 설 우리 불교총지중의 중흥의 깃발 아래 일사분란하게 매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전 불교계에 과시하여 종조의 유지를 받들고 만 중생을 구제할 새로운 종단으로 거듭나도록 다 같이 서원해야 할 것이다.

##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외부감사

### 종단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사무실에서 승직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학교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총지중은 종립 동해중학교 외부감사를 1월 10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외부감사는 종단에서 법성 사감원장, 시정 재무부장, 법경 사무국장, 정각사 우인정사와 교육행정계 종사하고 있는 교육행정 외부 전문가 2인이 참석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의 주안점은 "총지중이 동해중학교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정

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교육행정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단순히 지적보다는 개선방향을 찾는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원으로 종단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종단의 재무구조의 명확화와 투명성확보로 신뢰받는 종단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고,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하고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감사란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종단 역사상 최초로 외부전문가로 감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종단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 "대아적인 자비행 실천"

### 총지중 상반기 49일 불공, 2월 19일부터



지나해 상반기 49일불공을 맞이하여 보살들이 진언연송을 통해 자녀 절제와 경제해탈과 병고소멸을 기원하는 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중은 2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스승 및 모든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34년도 상반기 49일불공을 병행할 예정이다.

49일불공은 원정 종조께서 밀교의 호국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진호 국가불공이다.

원정 종조는 "49일불공 정진의 1차적인 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상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절제기를 위한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은 '자녀 절제'를 서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49일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두가 법신불의 당체설법이니 공덕 일으키는 법문으로 받아들여 더욱 엄숙하고 회사법을 세워서 49일을 잘 마쳐야 할 것이다.

49일을 완만하게 마쳐야 회향공덕이 있게 된다. 이 진호국가불공은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중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엄송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 종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오세길 통리원 교무

옛 말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마흔을 불혹(不惑)이라 했던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마흔살이 되면 그 동안의 온갖 삶의 경험을 토대로 절대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관이 확고하게 서 있으므로 해서, 자기의 길을 똑바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을유년을 맞이하면서 내 나이 마흔이 되었다. 불혹(不惑)이 된 이 나이에 그 동안의 사회생활을 접고 종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어찌어찌하다보니 내 뜻과는

렸지도 모르는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과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실천하려 한다.

그러하여 오욕락에 찌든 육신의 때를 씻고, 아상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생각하는 습을 버리고, 하심을 배우고, 악행을 경계하고, 선(善)을 행하여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다.

많이 망설였던게 사실이다. "불교 총지중(佛敎 總指宗)"

과연 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귀의하고 어떠한 반역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리하여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올바른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 어찌 되었던 하계 서 있으므로 해서, 자기의 길을 똑바로 꿋꿋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벗고 참 나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종교가 불교라고 한다.

또한 불교 수행은 일상속에 파문

## 집착을 버리고, 하심을 통해 선행실천

### 총실한 수행으로 자아성찰 실현

상관없이 불교를 만나게 되었다는 말을 하기에는 불혹의 내 나이로서 아무런 동경과 연민도 받지 못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살이는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생존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쉬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 자신한테 질문도 해 보았다. 세상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탈출구..., 즉 현실도피는 아닌가라고...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뒤돌아 보고 참회하기 위해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게으름과 편안함에 습관이 되어 버

려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진면목을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불음을 통해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종무원이라는 이 기간이 올바른 성직자가 되기 위한 담금질의 시간으로 보고, 열심히 하심을 배우고 신심을 닦으며 노력하고자 한다. 이 짧은 글 몇자를 옮기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초발심의 마음이 흐트러져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고, 나약해져서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내 나이 불혹(不惑)인 마흔인데 말이다.'

## 알림방

- 총지중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일 불사를 전국사원에서 1월 29일 병행하였습니다.
- 상반기 49일불공을 2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병행합니다.
- 통리원, 법장원 총기33년 결산감사를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합니다.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4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7일까지

개천사 김옥희 10,000	만보사 방원순 10,000	벽룡사 무명씨 10,000	운천사 박보경 30,000	해정사 김완식 10,000
개천사 김홍련 20,000	만보사 배정임 10,000	삼밀사 백진웅 30,000	자석사 우바이 50,000	해정사 박종석 10,000
개천사 박병선 5,000	만보사 이설강 5,000	삼밀사 의강 30,000	자석사 조창환 20,000	해정사 정은선 20,000
개천사 박병진 5,000	만보사 조덕남 5,000	삼밀사 이수연 30,000	정각사 구정희 40,000	해정사 조성기 10,000
개천사 송상규 50,000	밀인사 김덕배 20,000	선립사 김정도 10,000	정각사 김명진 10,000	해정사 지성인 2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밀인사 김덕차 4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해정사 해보심 10,000
관성사 박현숙 10,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수계사 김병수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화음사 권정희 5,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수계사 김순남 5,000	정각사 무명씨 1,000,000	화음사 김순환 5,000
관성사 해 정 10,000	밀인사 신동의 5,000	수계사 안주화 10,000	정각사 박훈휘 20,000	화음사 오분선 5,000
관성사 정법계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수계사 윤분연 5,000	정각사 신영자 5,000	화음사 이영선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연수 20,000	수계사 이상순 5,000	정각사 신옥필 5,000	화음사 자 당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위임 100,000	수계사 혜 산 50,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흥국사 장복순 30,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명 운 1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밀인사 이해원 5,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정희연 10,000	안화자 2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보사 안경숙 10,000	정각사 조현필 5,000	이계순 5,000
기로원 총지화 50,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실보사 이순옥 10,000	정각사 최분순 10,000	이화수 5,000
단향사 공철봉 6,000	백월사 이갑진 20,000	실지사 만 득 5,000	정각사 황영숙 10,000	최순전 10,000
덕화사 김상열 30,000	백월사 이민자 5,000	실지사 이숙혜 5,000	정심사 오윤보 5,000	허집수 5,000
덕화사 하순옥 5,000	백월사 이월규 10,000	실지사 정경자 15,000	지인사 무명씨 10,000	홍경자 10,000
만보사 김정희 10,000	백월사 임승민 3,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만보사 민분순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운천사 김부자 70,000	혜정사 고춘배 10,000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총지법문

#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원정 종조님께서 생전에 자주 보셨던 경론들이다>

### 믿음지켜 집안이 화평하고 편하여 현세에 복덕 따름 나의 적은 허물없으면 자식과 며느리 큰허물 없어진다

천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그 여섯 가지의 나쁜 마음을 고치자면 회사로써 야고 고 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계행으로써

추잡한 행실과 악마행동을 고치고, 인욕으로써 열이 나고 성이 나고 분이 나는 진심을 고치고, 정진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고치고, 선정으로써 어리석은 마음을 가리워하고, 지혜로써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육바라밀 행인 동시에 대승적 실천불교가 되니라.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여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답: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니라.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이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거나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지 말며,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거나 다른 이의 재물을 도적질 말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거나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지 말며, 자기 말의 신음을 사랑하거나 다른 이를 속이지 말며, 자기에 게 화합을 사랑하거나 다른 이에게 이간을 부치지 말며, 스스로 만족을 받으려거든 탐욕을 내지 말지니라.

(자료제공:총학연구소)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승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Q 가정의 화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 A 내 잘못을 알아서 하루 오십 번 이상 자성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가정에서 맥이 먼저 참회만 하면 화목이 됩니다.
- Q 어리석은 것은 어떤 것이냐?
- A 상인의 말씀 밖에 믿고 복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 Q 성인은 어느 어른이냐?
- A 석가여래, 공자, 그리스도, 소크라테스 넷 어른입니다.
- Q 불급보다 태과병이 큰 줄 아니냐?
- A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히 하는 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Q 내 허물을 어떻게 하여야 쉽게 알 수 있는나?  
A 남이 내 허물을 말하거나 기꺼이 듣고 또 부자나 부부나 형제나 친구에게 묻는 것이 속히 아는 것입니다.

어버이에게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의 대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 신교의 으뜸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하고 귀한 것은 인 자음에 있느니라. 대각님이 가정의 도를 살하시되 안을 닦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 화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라. 집에 어진 부인이 있으면 가장이 화화를 만나지 아니하니 어진 부인은 가장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가장을 천하게 하느니라. 어진 며느리는 육친을 화하고 재주는 며느리는 육친을 파하느니라.

능히 믿음을 지켜서 집안이 화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복덕이 자연히 따르니라. 이것은 실천한 과보이며 귀신이 준 것이 아니니라.

육바라밀은 무엇이나 답: 제일 회사, 제이 계행, 제삼 인욕, 제사 정진, 제오 선정, 제육 지혜, 이 여섯가지를 실천하여 저 언덕에 가는 것이니라. 우리 신교에서 실행하고 오는 것은 불경에서 이르는 육바라밀행의 실천주의의 이 여섯가지 실행

## 이달의 설법문안

#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자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의 로히니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에는 코울리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코울리아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석가족의 일족으로서 카필라의 석가족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과 태자시절의 비인 아쇼다라도 코울리아족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양쪽 나라를 끼고 있는 로히니강의 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된 어느 해 여름, 곡식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자 양국의 농민들은 강둑에 서서 어떻게 물을 끌어들이게 할까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울리족의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어어이, 이 강물을 양쪽 나라가 함께 사용한다면 두 나라 곡식이 모두 말라죽을 것이다. 물은 우리쪽에서만 쓸데니 모두 이리로 보내라."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너희들만 물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가을이 되어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너희 나라로 가서 곡식을 나눠달라 사정이라도 하란 말이냐? 어렵었다. 강물은 이쪽에서 모두 끌어들이야 해!"

이렇게 서로 물줄기를 자기 나라쪽으로 끌어들이려 하자 다투었고, 차츰 감정이 격해지자 욕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새끼들처럼 자기네 누나나 동생들과 동침하는 카필라놈들아! 한번 물어볼테냐?"

"대추나무에 동지를 틀고 사는 코울리 족속들이! 쳐들어올테면 쳐들어와보라 단번에 작살을 내

버릴테다."

마침내 양국의 농민들은 그들을 관할하는 관리들에게 도저히 응답할 수 없는 허물을 만들어 보고했고, 관리들은 들은 대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실이 온 나라로 전해지자 석가족들은 흥분했습니다.

"누나나 동생과 동침하는 사나이의 주먹 맛을 보여주자" 코울리아족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대추나무에 동지를 치고 사는 사나이의 숨씨를 보여주자." 마침내 두 나라는 전쟁 직전의 험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카필라의 교외에 있는 대림(大林)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위기를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공중을 날아 로히니강의 상공에서 좌선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나라의 왕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자 무기를 버리고 예배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마 장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사(知事)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물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농민들에게 물어보니 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원인을 알게 되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왕이여, 물과 사람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지요." "그런데 왜 물 때문에 훨씬 중요한 목숨을 버려야 하십니까? 그것도 전투를 하는 이유조차 분명히 모르는 싸움을!"

양국의 왕은 부처님의 이 말씀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죽여 피의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시작된 말 한마디가 능히 피바다 직전의 상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실로 구업(口業)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허물부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수행자가 본분을 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중상모략한다면 어찌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수행자가 남

을 헐뜯는 것은 도심(道心)을 근원적으로 등지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비방을 들을 때, 그 칭찬과 비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허물을 바로 볼 줄 아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경전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 어느 것을 들을지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하느니라, 덕이 없으면서 남의 칭찬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고, 허물이 있어 아단을 듣는다면 참으로 기뻐할 일이다. 기뻐하면 잘못된 점을 찾아 반드시 고칠 수 있게 되고, 부끄러워하면 도를 더욱 부지런히 닦고자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무심할 수 있고 배워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참으로 빼어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못했더라도 욕을 얻어먹으면, "이 자식이 욕을 해? 잘 만났다. 오늘 한번 맞아봐라."하면서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아무성 칭찬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추켜 세우려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자기의 허물부터 볼 줄 알아야 칭찬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 동요없는 자세가 수행자 길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을 긍정할 줄 모르고 칭찬을 좋아하는 밀바닥에는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잘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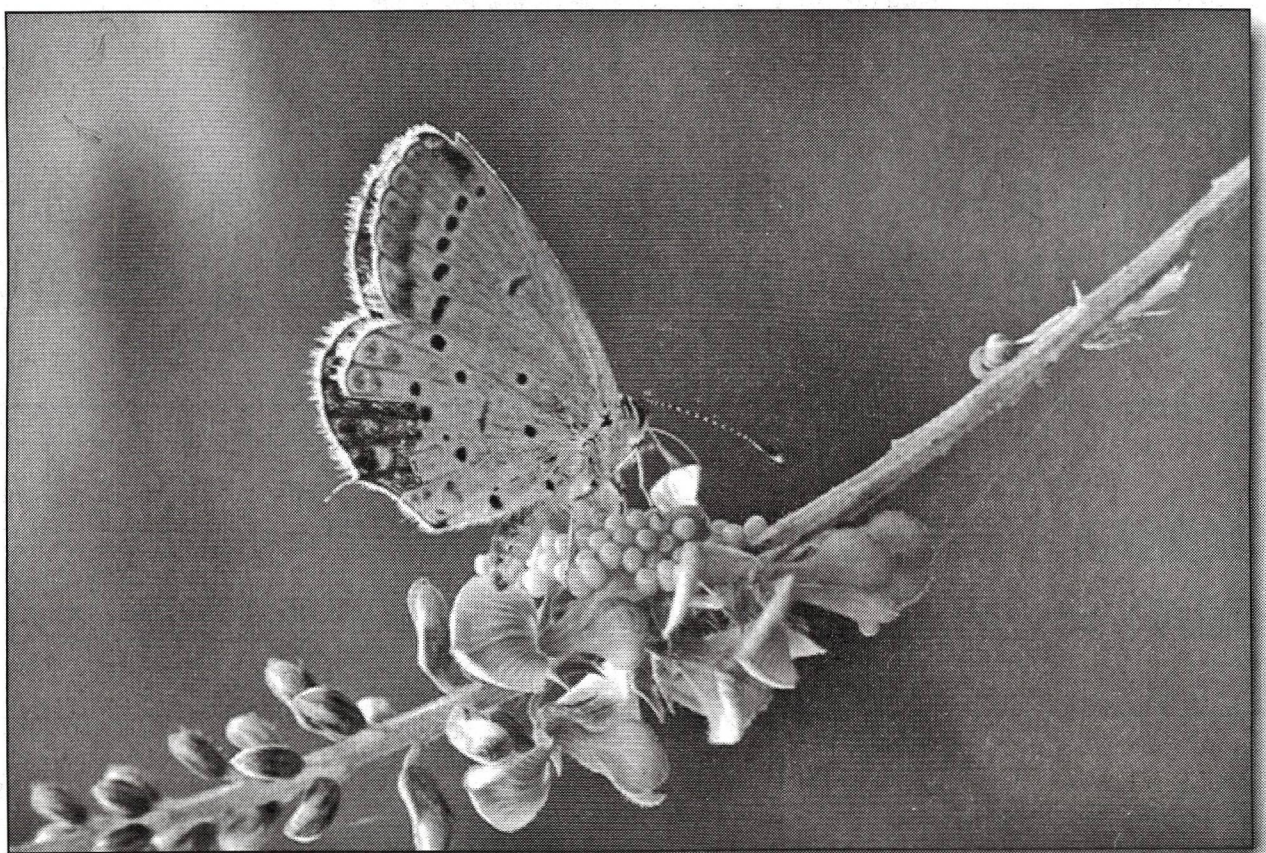
넓은 들판에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를 늘 알아보고 있던 전나무가 어느 날 가시나무에 말을 걸었습니다.

"못생긴 가시나무야, 너는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구나." 전나무의 말에 가시나무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전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전나무야, 그럼 너는 어떤 쓸모가 있니?" "나만큼 좋은 재목이 어디 있겠어?" 마땅히 좋은 집을 지을 때 사용되지." 전나무는 어깨에 힘을 주고 뽐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피식 웃으며 절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나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이 들판에 오면 그랜 내가 부러워질걸?" 전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처럼 수행자는 잘나기를 배려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못생긴 나무가 되고자 할 때 큰 나무로 자랑 수 있고, 세상의 부질없는 유혹을 면하여 도를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칭찬과 비난을 받을 때 감정의 동요가 생겨날 까닭이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한 것도 없이 남의 칭찬을 들을 때 능히 부끄러워할 줄 알고, 허물이 있어서 욕을 들을 때 아난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없애줍니다. 수행자는 잘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못난 사람이 되고 못난 바보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못난 바보! 못난 바보가 될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수행의 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에 서 가장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②3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 · 적유명보살(寂留明菩薩)

지난 호에서 아수다라보살(耶輸陀羅菩薩)과 여의륜보살(如意輪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과 적유명보살(寂留明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

『대일경』에는 이 본존의 명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대일경소』에는 일본 진언종의 개조인 공해(空海) 대사가 전래한 것으로 대길상(大吉祥)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양손에 각각 연꽃을 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도만다라에는 왼손에만 들고 있다. 이 본존은 『불공견색경』에서 유래한다. 거기에는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 젖히고 반가(半珈)로 앉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존형(尊形)은 현도만다라에서는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이 된다.



대길상대명보살

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쿠사하 타하 라 안 칸 사바하 이다.

적유명보살(寂留明菩薩)

이 보살의 범어명(梵語名)은 「지복(至福)을 가져다 주는 지혜(智慧)를 갖춘 자(者)」를 의미한다. 『불공견색경(不空?索經)』에서 유래하는 분노존(忿怒尊), 즉 명왕(明王)이지만,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원명(原名)인 '시바'(śiva; 至福)를 「적정(寂靜)」이라고 이해한 한역명(漢譯名)에 근거하여 보살형(菩薩形)으로 한다.

「지복(至福)」을 의미하는 '시바'란 힌두교의 대표적 신으로서 폭위(暴威)를 떨치는 분노(忿怒)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태장도상(胎藏圖像)』에서는 그 이미지에 가까운 분노존(忿怒尊)이다. 현도(現圖)에서 볼 수 있는, 높게 들어 올린 오른손은 장애(障礙)·번뇌(煩惱)를 모두 떨쳐 없애버리고, 왼손의 독고저(獨結杵)의 인계(印契)는 그 것으로부터 항복(降伏)받는 것을 나타낸다.



적유명보살

밀호(密號)는 정광금강

대길상대명보살은 널리 중생구제와 부처님 귀의  
적유명보살은 지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 갖춘 자

만공양(曼供養)을 뒤에다 두고 있다.

이 보살의 존형(尊形)은 왼손에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며 약지(藥指)는 세우고 무명지(無名指)·중지(中指)는 구부리고, 인지(人指)는 약간만 구부려서 엄지로 누르는 모습을 취하여 붉은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이 보살의 진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의 진언과 동일하다.

'나막 사만다보다남 기샤타 라 엔 칸 사바하'이다. 뜻은 '널

(定光金剛)이며, 삼매아형은 개부연화(開敷蓮華)이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왼손의 인지(人指)는 펴고, 다른 네 손가락은 구부려서 독고저(獨結杵)의 형태처럼 한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높이 든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천의(天衣)를 걸치며 적연화(赤蓮華)에 앉는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眞言)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의 진언과 동일하다. 또는 달리 '옴 시바비카비치에 사바하'라고도 한다.

(자료정리 : 통일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수행

▶어느날 하늘 나라의 신선이 춘곤증에 시달리며 심심해 하다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지상에 가장 뛰어난 장인 두 명을 불러 너무나도 진귀한 옥을 하나씩 주며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이 옥을 잘 다듬어 놓거라" 하고는 훌쩍 사라졌다.

답대에 제법 폼 잡던 장인 두 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는 피식 웃으며 자신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곤 옥을 보았는데 두 가지에 놀랐다.

한가지는 그 옥이 지상에서는 없는 너무나도 영롱하고 진귀한 빛이었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귀한 옥에 보기 싫은 티가 한가운데에 딱 하나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장인 한 명은 이 너무나도 귀한 옥에 자리잡은 티가 보기 싫어서 정성껏 티를 깎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티를 깎아내고 보니 그 안에 또 티가 연결되어 있었고 이 티와 계속 시름을 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신선은 다시 두 명의 장인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티를 정성껏 깎아냈던 장인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꾸 티를 깎아내다보니 그 진귀한 광채는 온데 간데 없고 티만 불거진 볼품없는 옥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신선이 옥을 내놓으라고 하자 장인은 옥을 힘없이 내어 놓으면서 신선 얼굴을 바라다 보았다. "네 옥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무도 귀한 옥에 있는 티가 보기 싫어서 그것만 없애려 하다보니,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선은 빙그레 웃으며 다른 한 명의 장인에게 물었다.

다. "그래 자네는 어떻게 되었는고?" 다른 한명의 장인은 아무 말없이 주단에 쓴 옥을 주섬주섬 꺼내놓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두 번째 장인이 꺼내놓은 옥은 그 진귀한 광채는 말할 것도 없고 보기 싫은 티도 사라진 상태였다.

신선은 미소를 머금으며 "그래,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예, 저는 옥을 보고는 티가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자칫 옥이 다칠까봐 옥을 깨끗이 해주고 자주 광을 닦아주며 매일매일 그 광채를 보며 황홀함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옥은 스스로 자란더니 옥이 제 스스로 티를 없애는 걸 보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완벽한 옥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는 방법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것

▶우리는 가끔 자

신이 중요한 존재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단점과 결함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고치려 든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다듬는 방법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잘못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들의 단점에 더 많이 신경쓰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아껴주는 것이다. 그럴때 우리의 동료, 자녀, 소중한 배우자도 점점 티를 스스로 없애는 옥처럼 그 소중한 가치를 더욱더 발하게 될 것이다.

나는 혹시 옥을 깎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을 해 본다.

(법경:시무국장/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합장은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인도의 경례법 중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중요한 예배의식의 하나로 일심(一心)과 예경(禮敬)·공경(恭敬)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합장은 바로 행자 자신이 아상(我相)과 교만심을 이겨내는 수행이요, 자기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하심(下心)의 첫 공부이기도 하다.

『관음의 소』상에서는 합장을 '두 손을 하나로 하는 것은 감히 산란하지 않음을 표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합장은 일반적으로 두 손바닥을 마주 보게하여 합(合)하는 것으로 밀교에서는 이를 금강합장(金剛合掌)이라 하고, 현교에서는 '연화합장(蓮華合掌)' 또는 건

실심합장(堅實心合掌)이라 한다.

금강합장은 합장차수(合掌叉手)라 하여 양 손가락의 사이를 서로 교차하여 합하는 것이고, 연화합장은 양 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붙이는 것을 말한다.

밀교에서 합장은 정(定)과 혜(慧)의 상응, 부처와 중생의 합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그 공덕이 광대무량하다고 보고 있다. 또 왼손은 중생세계요,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로써 두 손의 합장을 통해 중생과 부처가

불이되어(不二一如)하여 범성불이(凡聖不二)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금강합장을 일체공양최

승출생인, 일체불심삼매아인, 예배인이라고도 한다.

이 열 손가락은 십바라밀과 십법계를 의미하여 이 인(印)을 결합하여 십바라밀을 원만히 하고 십자재를 얻어서 복과 지혜의 공덕을 성취함을 나타내고 있다.

(편집자 주)

금강합장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총지칼럼

#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김종인〉

-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 ▲스토니부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오늘날 한국 불교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불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 불교계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성은 주로 불교의 종교적 이상에 비추어 본 반성이라기보다는 타종교, 특히 활발한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계의 비교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사업이 과연 불교적 이상의 실천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또다른 각도에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이 문제는 쉽사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계의 복지사업이 불교의 종교적 이상의 실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 두고라도 우선 살펴볼 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불교계가 다른 종교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수의 복지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복지사업이 아니더라도 불교적 이상을 실현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 대안들이 복지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복지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불교적 이상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이상 양자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오늘날의 복지사업은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 양식이나 의약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복지사업은 접근대 사회에서의 빈민구제와 달리 매우 전문화된 사업이다. 육아, 교육, 건강, 취업, 양로, 심지어는 레크리에이션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복지사업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 대상도 고아나 빈민 같은 소외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정부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인들을 받고 적극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쉽게도 불교 종단이나 단체의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려 한다.

그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관장" "○○원장" 혹은 "○○장"이라는 감투를 쓰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명예에 대한 한심스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그나마 몇 안 되는 불교계의 사회복지 전문인들을 제쳐놓고 자신들이 나서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

## 현대의 사회복지사업은 빈민구제와 달리 매우 전문화된 사업 사회적 명예나 욕심을 버리고 불교계 사회복지 전문인 육성 종단과 단체는 사회복지 전문인을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

사회복지의 영역이 이처럼 광범위한 만큼 복지사업체의 운영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두고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기독교계나 카톨릭계에서 복지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들 전문가들에게 복지사업을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불교계의 많은 복지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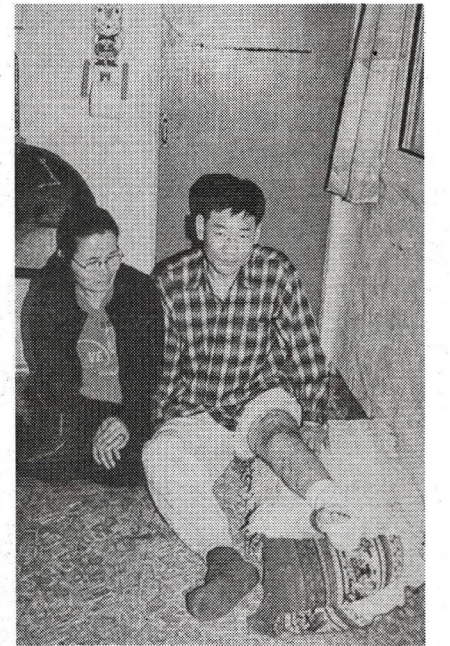
들이 사업활동을 통한 불교적 이상의 실천은 고사하고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이상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과 불교 종단 지도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의식의 결여에 있다.

불교계에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태부족하다.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인들이다.

불교계가 계속 사회복지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불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련 관계법령도 잘 알고, 해당 복지사업체가 실시할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불교 사회복지 사업을 후원하는 불교 종단이나 단체들은 이들 사회복지 전문



이런 이들이 불교계의 사회복지 사업체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돈만 쏟아 붓고 마는 것이다.

불교계 종단이나 단체의 책임자들은 헛된 명예욕을 버리고, 뒤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복지사업도 잘 되고 불교 이념의 전파도 잘 될 수 있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 불면증

수면장애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일상동안 한 두번은 누구나 고생한 과거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중추신경계의 활성화,

에너지의 저장, 체온조절, 감각이 과부하된 뇌로부터 기억의 삭제기능 등이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체 리듬입니다.

따라서 수면이 불충분하면 신체적 정

신적 기능의 저하를 가져 옵니다. 불면증은 수면의 시작과 유지가 힘든 것으로 일과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증, 하지초조증 등과 같이 신체질환과 관련된 것도 있고, 불안, 긴장성, 근육성 불안, 환경의 변화, 우울증 등 정서 및 환경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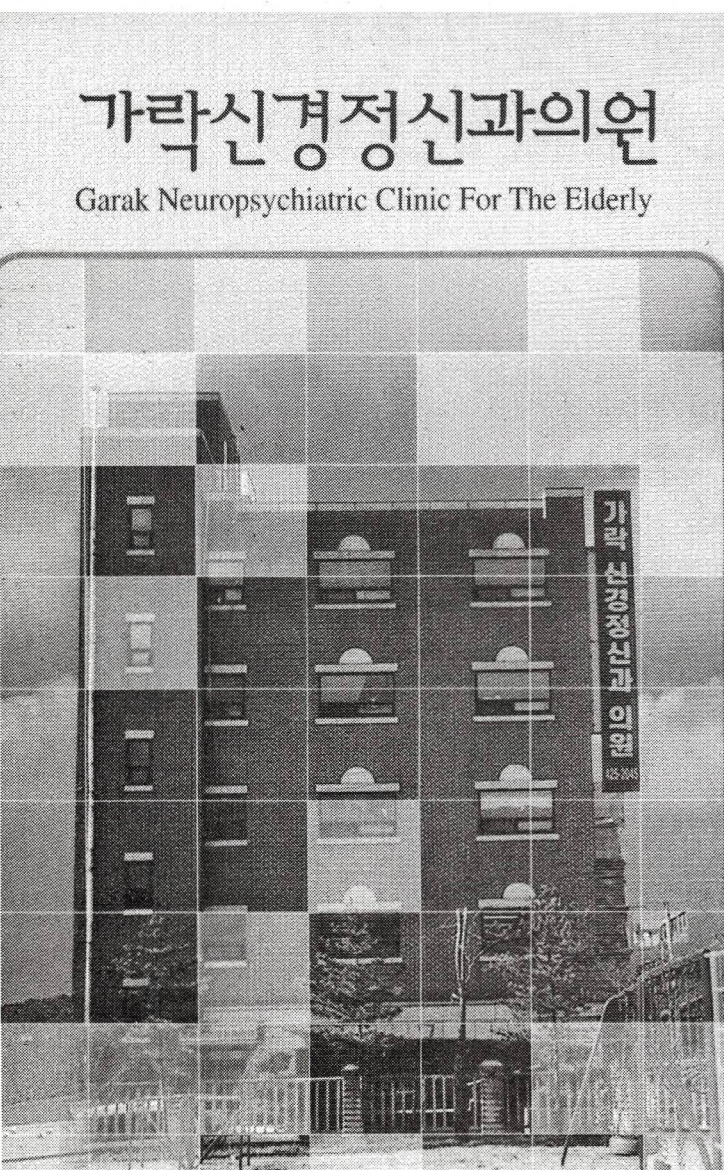
적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의 치료방법에는 원인의 제거, 약물 치료, 환경요법, 행동 및 인지치료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다음 번 기고에서

## 수면이 불충분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원인제거, 약물치료, 환경요법, 인지치료가 적용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 불편이나 통증, 중추신경의 병, 수면무호

수면장애의 진단은 환자의 호소와 수면검사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증상을 자세히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 개략

자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http://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 주요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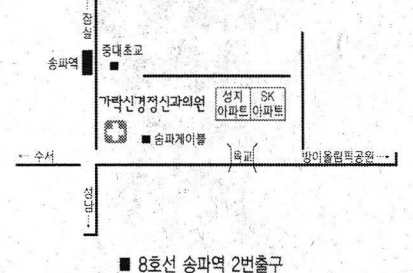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 약도





풍경소리

계곡의 종탁에서

모서리만이 무기였다.  
 낮은 땅에 버려져  
 짙히고 굵히고 부서지고  
 비탈길 자갈길 낭떠러지  
 구르고 또 굴러 여기까지 왔다  
 그 틈에 떨어져 나간 모서리들  
 나무처럼 썩이를 만들지 않고  
 상처 자국이 매끄러워졌다.  
 여기가 어디쯤일까?  
 물소리 새소리가 들린다.  
 물소리 따라 흐르다 보니  
 말간 물살 아래서 절간 한 채 출렁인다.  
 풍경소리가 울려 퍼진다.  
 등글어진 몸의 지문을 타고 산사 한 채 퍼져 나간다.  
 - 김천욱/시인

수덕사 나비춤

덕숭산 수덕사에서는  
 나뭇잎이 나비가 된다.  
 낙엽이 나비춤 추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춤추는 나비들이  
 가지의 단풍을 보고 속삭인다.  
 어서 일어나 날아가자  
 우리 함께 날아 그 곳에 가자  
 은행잎은 노랑나비  
 단풍잎은 붉은 나비 되어  
 숨들을 고르고 있다.  
 들개바람 일으키며  
 하늘높이 날아갈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 최병익/시인

상처의 집

바삭 마른 그 집  
 다 쓰러져가는 블록 담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서  
 세월에 덧나고 금간  
 상처와 상처가 서로 붙들고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그 오래된 끈기를 보고 싶다.  
 가장 큰 슬픔으로 한 순간  
 슬슬히 무너져 내려도 아쉬움 없을  
 깊고 오래된 눈빛들의  
 상처의 집 하나 짓고 싶다.  
 - 윤임수/시인

만행(萬行)

늦가을 감참나무숲이 소란하다  
 도무지 야단법석이다.  
 도토리 동지승들이 정신없이 뛰어놀고 있다.  
 까까머리 동지승들이 세상 속으로 소풍을 오셨나?  
 시골벽적한 소리가 온 산을 깨워잡고 있다.  
 그 소리에 즐거워진 귀를 연다.  
 한 쪽 귀만 세우면 박수소리였다가  
 두 쪽 귀를 열면 풍경소리였다가  
 거참, 물방울소리였다가  
 저 숲속이 정토라 여겨 풍긋 마음에 귀를 열면  
 금세 목탁소리가 난다  
 목탁소리에서 깊은 향기가 난다  
 - 고영/시인

이달의 명상

계행은 지혜의 근원

누구든지 속박당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초등학교  
 들도 이번 시간은 수업하지 않고 논다고 하면 환호  
 성을 지르며 좋아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얽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속하  
 고 얽매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계행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완전  
 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법(法)이라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도(佛道)에  
 입문한 모든 이들이 처음부터 견성하여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계행이 필요한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되어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  
 다. 오히려 모든 번뇌망상과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  
 하지 못하여 끝없이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몽치들  
 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거리로부터 수도자를  
 보호하고,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회복해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계행인 것입  
 니다.

인생을 꼼꼼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야말로 한바  
 탕 꿈에 불과합니다. 그 꿈을 깨고 나면 공신(空  
 身), 텅빈 몸종아리뿐인 것입니다. 좋은 일, 좋은  
 일이 한바탕 꿈인데도 꿈속에서 헤아리며 사는 것  
 이 우리들입니다. 실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  
 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꿈에서 잠  
 시도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아무것도 이론 것 없이 이 세상에 한번 왔  
 다가 그냥 가는 이 몸, 그것은 바로 행이 없는 빈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행이 없으면 선정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무엇  
 보다 계행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깨졌으니 선정  
 의 물이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로병이 부수  
 어졌으니 감로수가 담겨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물  
 이 담겨 있어야 찌꺼기가 가라앉고, 고요히 맑은  
 물에 달이 비쳐서 지혜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월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7화~

글:그림/정수일

고집멸도 사제의 "고"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인생은 "고"다! 사는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럼 맞았는데 상금이나 상품 같은 건 없어요?

공! 정말 인생은 "고"로군.

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재미있는 얘기나 계속 해주세요.

뭔가 생각하려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괴롭죠?

각자님, 오늘 매상이 얼마나 되지요?

휴~ 괴로운 질문을 하시네. 500 네 잔에 통달한 마리... 그리고...

음료수 두 잔은 대성사님이 시킨거네요, 뭐 에이.. 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더 큰 가게로 이사를 갈텐데.. 차도 바꿔야 하고 휴~휴~휴~ 그놈의돈...

집(濃)이란 모인다는 의미이고 고(苦)제의 원인으로 인생에 있어서 고뇌는 집착에 의한 번뇌에서 발생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없애버린다면 인생은 즐겁겠지요?

에잇! 원장. 여기 음료수 한 잔 더.

헉! 하..하지만 아무런 욕심이나 집착이 없다면 의욕상실이 될텐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좋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다만 잘되려는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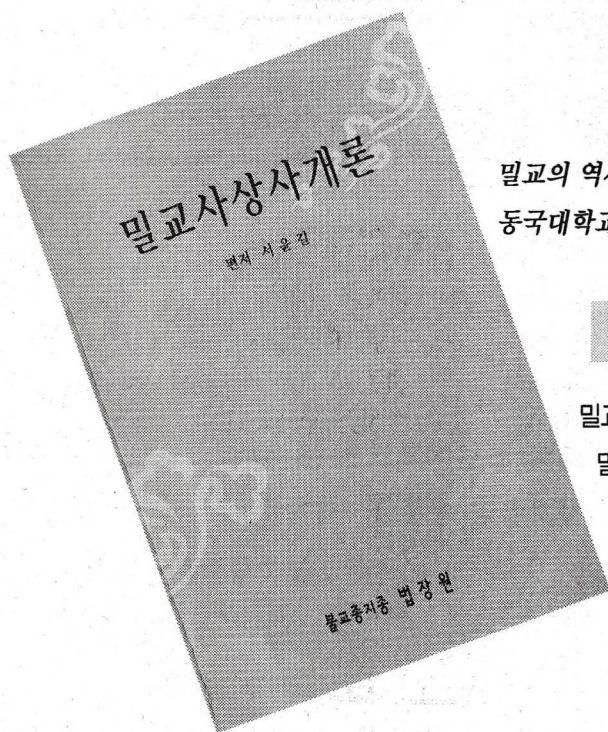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으면 치료도 가능하겠죠? 멸(滅)제는 바로 고의 원인인 집착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도 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복권이나 사서 당첨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도... 도(道)제란... 크헉!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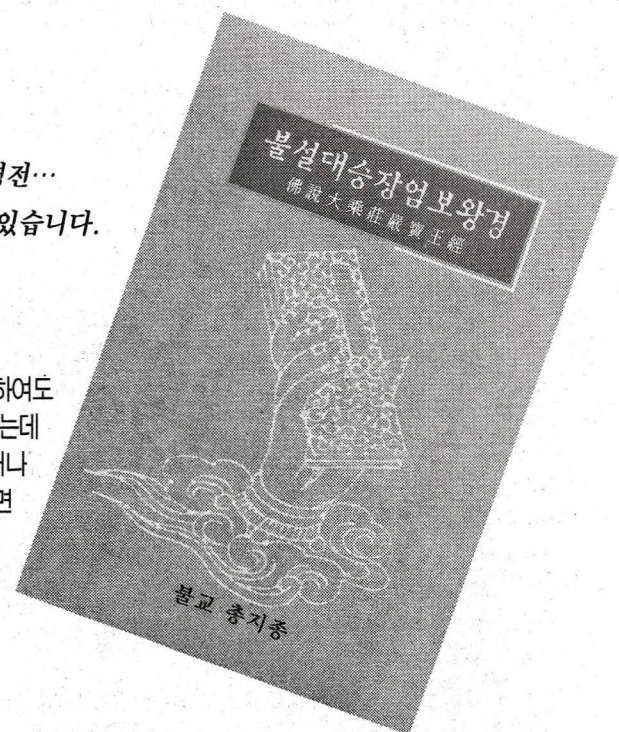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옴마니반메훬>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배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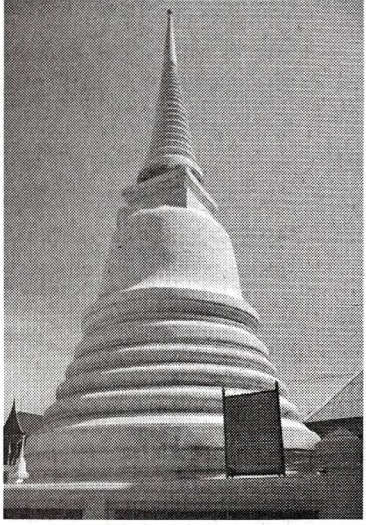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in Thailand(태국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태국불교는 B.C 3세기에 아소카왕이 포교사를 태국에 보내 불교가 태국인들에게 신앙되게 되었다고 전해내려 오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태국에서 불교는 벵가, 말라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해안에 7백년동안 거주하고 왕래했던 인도인들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때 인도인들은 태국의 고대지역에서 발견된 비취누와 쉬바, 부처의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힌두교와 불교를 동시에 신봉하고 있었다.

불교와 힌두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토착신앙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에도 신전의 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남아있다. A.D 6세기까지 불교는 지금 태국의 남쪽과 중앙에서 성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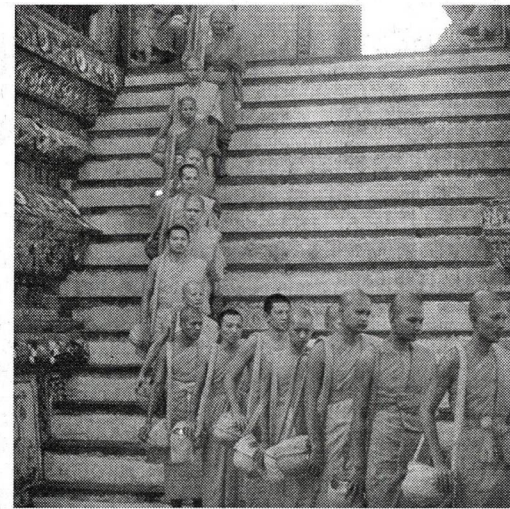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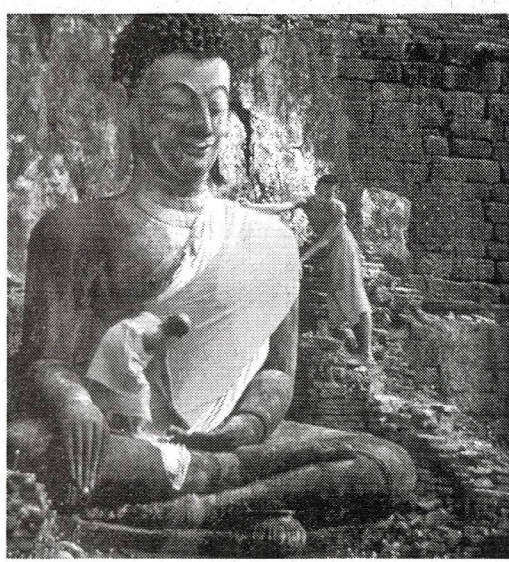
그 당시에는 대승불교, 탄트라불교와 힌두교가 주요한 종교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른 시기에 벵가마의 남쪽 스님들이 소승불교를 받아들여 신앙하였으며 그 후 이들이 태국의 차오 푸야의 중앙 계곡에 침범하여 태국의 종교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3세기부터 7세기까지 드 바라바티 왕국이 건설되었다. 그들은 거대하고 특별한 형태의 경전과 불상을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유물들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태국의 소승 불교는 A.D 1057년에 벵가마의 아나우라타 왕이 단톤왕을 물리침으로써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다.



태국의 역사는 13세기 슈코태 제국시절에 융성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태국인종과 언어를 만들게 되었다. 아우드하야 왕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교는 발전하고, 1750년까지 사원에서 많은 신성한 서적과 가치있는 역대기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들은 1766년부터 1767년까지 벵가마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태국의 수도인 아우드하야는 4개월 동안 도시 전체가 화재와 유행병으로 황폐화되었다. 그러나 13세기와 14세기에 스리랑카로부터 스님들이 들어와 소승불교를 일으켜 현재까지 태국의 주요한 종교로 자리잡고 있다.



1782년부터 1824년까지 태국을 통치한 현재의 차크리 왕조의 프라 붓다 요드 파와 프라 붓다 로에트왕은 붓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교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세 번째 왕 프라 낭 클라오운은 붓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에 헌신적이었으며 사원건축과 경전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몽커트의 왕자 바지라 안바로로스 1892년부터 1910년까지 몬나스틱 불교종단의 수장이 되었다. 그가 1921년 사망할 때까지 스님이 되기도 하였다.

1782년부터 1824년까지 태국을 통치한 현재의 차크리 왕조의 프라 붓다 요드 파와 프라 붓다 로에트왕은 붓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교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세 번째 왕 프라 낭 클라오운은 붓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교에 헌신적이었으며 사원건축과 경전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몽커트의 왕자 바지라 안바로로스 1892년부터 1910년까지 몬나스틱 불교종단의 수장이 되었다. 그가 1921년 사망할 때까지 스님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라마 3세의 손자도 스님이 되었으며, 1937년 사망할 때까지 불교단에서 고위직에 올랐다. 모든 태국 왕들이 젊은 시절에 사원에서 수련생활을 하는 것은 관례화가 되었으며, 왕들은 개인적 관심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에서 불교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에 의한 서양의 침입이 없었다면 태국은 기독교 선교사와 서양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태국인구의 94%는 스스로 불교신도라고 자부한다. 19세기에 한 때 스님이었던 몽커트왕은 승려생활의 개혁과 현대화에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북쪽지방의 금욕주의 수행자들의 지원과 후원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금욕주의 승려중의 한 사람인 아즈한 차 스님은 서양에 후계자들을 양성하여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서양지역에 여러 곳에 사원을 건립하며 불교를 포교하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thailand-txt.htm 번역 : 김용주/총지종보사>



정보 다이제스트

피곤한 50대...주당57시간 일해 가장 길어

장년층인 우리나라 50대의 주당 근로시간은 57시간 5분으로 20대의 평균근로시간 51시간 15분보다 무려 6시간 가까이 길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03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4시간 54분으로 전년도의 55시간 42분에 비해 48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 42시간 20분, 20대 51시간 15분, 30대 54시간 37분, 40대 56시간 27분, 50대 57시간 2분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52시간 47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근로시간을 보면 남자가 56시간 14분으로 여자의 53시간 5분에 비해 3시간 9분 가량 길었으며, 50대 여성취업자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 40분으로 가장 길었다. 고용정보원은 50대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원인은 '관리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시간이 길어진 측면과 명예퇴직 이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50대 여성은 30대에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복귀하면서 전문성 부족 때문에 청소용역, 주방보조원, 파출부 등 장시간 저임금 직종으로 일자리가 한정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주당 근로시간이 긴 직업은 선박감관원(80시간 26분), 숙박시설 서비스원(79시간 25분),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73시간 37분)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강사(17시간 23분), 흥

보도유미(28시간 34분), 지휘자 작곡 및 연주자(27시간 4분)는 근로시간이 짧은 직종으로 꼽혔다.

일할 맛 나는 직장상사 1위 "믿고 맡긴다" 형

직장인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상사 1위는 부하직원의 능력을 믿고 일을 맡기는 유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의 가전사업본부(DA)가 지난 1~10일 직원 6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 1위는 '부하를 믿고 일을 맡겨주는 상사'(39.7%)로 나타났다. 2위는 '소신껏 일하는 상사'(17.9%), 3위는 '친구나 형같은 상사'(17.4%)였고, 다음은 '업무능력이 뛰어난 상사'(12.8%), '공사(公私) 구분이 뚜렷한 상사'(6.9%), '밥이나 술을 잘 사 주는 상사'(4.0%) 순이었다.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직무수행에 대한 상사와 동료들의 인정이란 대답이 40.1%로 가장 많았고, '교육기회제공'(23.4%), '업무수완'(17.5%),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17.5%)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생활에서 고민거리가 생기면 누구와 상담하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동료나 상사'(33.5%), '직장 밖의 친구'(21.5%), '배우나 자녀'(18.1%), '전문 카운슬러'(1.5%) 순이었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답변도 24.8%나 됐다. LG전자 관계자는 직원들이 회사생활에서 개선할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턱대고 잘 대해 주는 것 보다는 능력을 믿고 업무 자율권을 주는 상사와 눈치 안보고 소신있게 일하는 상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패가 심한 것으로 여기는 기관은 국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유엔이 정한 제1회 국제 반부패의 날인 9일 전세계 64개국 국민 5만여명을 대상으로

6~9월 실시한 민중의 소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부패가 심한 정도에 따라 1~5점을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평균 4.5점을 받아 가장 부패한 기관의 오명을 받게 됐다. 정당은 4.4점을 받아 2위, 경찰은 3.8점을 받아 3위로 꼽혔다. 반면 점수가 낮아 가장 부패가 덜한 기관으로 뽑힌 곳은 전기 및 면허 서비스, 공공시설이 각각 2.5점이었고 다음은 NGO(2.8점) 종교단체(3.1) 순이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부패한 기관은 정당(4점) 의회(3.7점) 범죄경찰(3.6) 순이었고 부패가 덜한 기관은 종교단체(2.7점) NGO(2.8점) 군대(2.9점) 순이었다.

타임지 "잠 잘자는 법 6가지" 소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12일 인터넷 판에서 수면에 대한 특집 기사를 통해 잠을 잘 자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타임지는 "들춰나 바퀴처럼 신진대사 비율이 높은 동물은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많은 독성 분자도 생성시킨다"면서 "수면은 뇌를 재충전할 뿐 아니라 뇌의 독성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타임지는 "수면은 뇌가 이런 독성물질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시간을 제공한다"며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잠자기 30분 전 컴퓨터나 TV보지 않기, ▲주말에 늦잠 자기 말기 등을 권유했다. 타임지는 이와 함께 ▲물고래는 수영을 하면서도 잠을 잔다. 뇌의 절반은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절반의 뇌로 호흡을 조절한다. ▲코끼리는 하루 4시간만 잠을 자는데 대부분 서서 잔다. 적이 없는 밀밭의 왕자 숫 사자는 하루 12시간 정도씩 잠을 잔다. 등 동물 수면의 특징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타임지가 제시한 6가지 잠 잘자는 방법. 1) 잠자는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라. 1주일 내내 잠을 보충한다며 주말에 늦잠을 자지 마라. 2) 침실 분위기를 시원하고 어둡게, 그리고 어지럽지 않게 함으로써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

을 유지하라. 눈을 가리는 차양이나 귀마개도 도움이 된다. 3) 오후에는 콜라와 초콜릿을 포함, 카페인을 마시지 마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저녁은 최소한 잠자기 3시간 전에 먹어라. 4) 뜨거운 우유는 훌륭한 수면제다. 그러나 알코올은 좋지 않다. 5) 잠자기 30분 전에는 컴퓨터나 TV를 보지 말고 논쟁도 하지 마라. 부드러운 음악은 물론, 추리소설도 괜찮다. 그러나 소름끼치는 소설을 피하라. 6) 잠자리에 들었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조용한 활동을 하라.

유럽 감옥은 이슬람전사 양성소

프랑스 파리에 사는 아랍인 압둘라씨는 최근 2년 동안 다섯 번 감옥에 다녀왔다. 그는 하루 21시간 침묵이나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았다. 햇빛을 보는 시간은 하루에 두 번 있는 산책시간 뿐, 동료 수감자 말고는 이야기 상대도 없었다. 세 번째 수감됐던 압둘라 씨는 예언자 마호메트에 관한 책을 읽었다. 네 번째 플로리 메로기스 감옥에서는 마호메트의 삶과 사후에 관한 DVD도 봤다. 그때부터 압둘라씨는 이슬람을 위해 몸 바치기로 맹세했다.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본은 9일 압둘라 씨의 삶을 전하며 "유럽의 감옥이 과격 이슬람교도를 만드는 양성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 내 아랍인의 비율은 약 10%. 하지만 유럽 국가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 가운데 60% 이상이 아랍인이다. 유럽 사회의 최하층을 이루면서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옥에서 종종 '이슬람 전사'가 돼 나온다. 최근 스페인에서 폭탄테러를 모의하다 붙잡힌 용의자는 "감옥에서 만난 이슬람교도들을 모아 이런 일을 꾸렸다"고 자백했다. 이 신문은 유럽 국가들은 '수감자의 인종 및 종교적 변화에 둔감하다'며 '아랍인 수감자들의 생활상은 여러 측면에서 합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 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 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인터뷰 총지중 종립 동해중학교 박수현 신임교장

##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에 매진



박수현 동해중 교장

▶ 먼저 동해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재단과 학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아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원만히 수행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중단 및 학교재단 관리 위원회에서 학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해중학교는 국가의 교육지표가 있고, 종단의 건학이념인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이 학교 설립이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조화시켜서 본교 교육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동해중학교는 불교반 운영,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불교교리시간, 청소년 불교학생회 활동 파라미터 등의 3분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는데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불교반은 학생 수를 더 늘여가고 재량활동 시간에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불교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할 것이며, 파라미터활동은 종진과 같이 교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권장을 하겠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불교 재량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는 종단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교”를 파견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교장선생님의 종교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이며, 어릴 때부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불교문화 속에서 생활해 왔으며, 현재도 아내와 정각사 합창단 활동을 해 오고 있고, 저 역시도 다년간 정각사에 적을 두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부산시 체육회 활동으로 충실한 종교활동이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기는 하나 이제 종립학교의 최고 경영자로서 불심 함양은 물론 불교문



### 학교시설 운용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정책 종단상징 조형물설치로 종립학교 위상 강화

로도 계속해서 역량을 모아서 학교환경의 창의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시설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유휴 공간 및 학생들의 학습의 장 마련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설 개선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성취도 향상 및 인성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교육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외적인 요소나 구조물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변화하는 학교, 내실있는 학교로서의 동해중학교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개선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할 생각입니다. 특히 교문 진입로와 본관 입구 현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크게 넓혀서 휴식공간과 동해중학교 역사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전교직원간의 화합과 인화 단결 및 소속감 고취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신임 교장선생님은 동해중학교에서 최고 연장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안 동해중학교에 근무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해중학교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사기를 어떻게 높이고 유기적으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사는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교육은 선생님들의 이해와 협조와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종단과 재단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총지중의 고리와 수행체계의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종교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때 종단에서 학생수련을 시킨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가급적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서 학생들이 수련을 받는 시간에 선생님들도 종교연수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달리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연 1~2회 정도 학교에서 전 선생님들께 종교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도 생각

해 볼 만합니다.

선생님들의 종교연수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스스로가 얼마나 참여하고 호응도가 높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은 충분히 고려하여 접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동해중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대외적인 외부활동과 행정적으로 학교의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외활동 활성화와 교무행정의 활성화를 어떻게 수행하시 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스카우트(B.S)지도자 활동과 부산시 체육회 이사, 육상경기 임원으로써 한국육상 발전과 부산육상 발전 및 국제경기 심판장의 업무에 봉사를 해왔고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하여 많은 동료들이 교육계 요소 요소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중학교를 졸업한 많은 분들이 부산 교육계에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자 하며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나간다면 학교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동해중학교는 총지중의 유일한 종립 학교로써 그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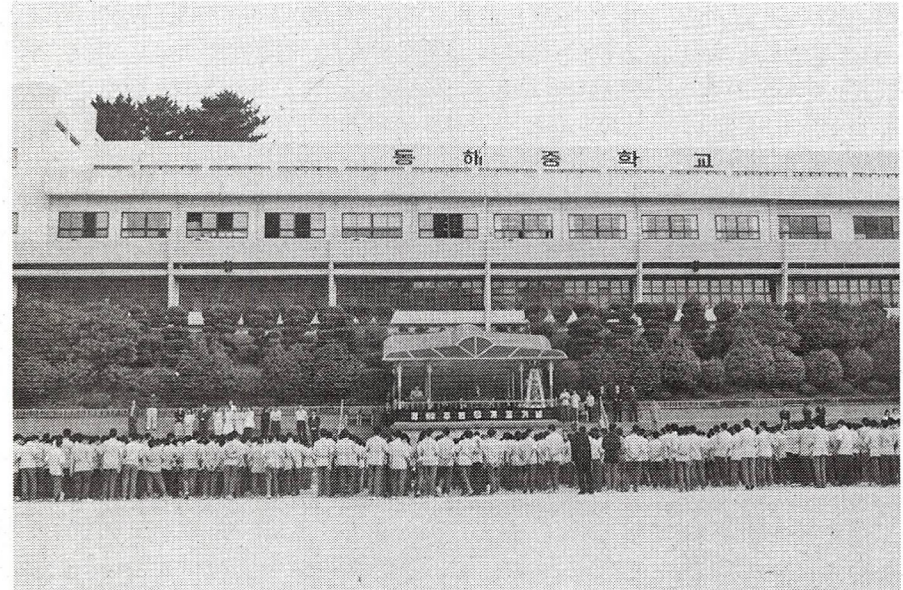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래지구의 타 사립학교와도 유대를 강화하여 정보교환을 해 나갈 필요를 기 집니다.

본교가 총지중 종립학교임을 알 수 있도록 교문과 학교내 적합한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관을 확장할 경우 불교 활동상을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학교운영에 있어 직원들간, 학부모와 학생들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실 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날 학교운영은 학교장이나 선생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교육 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유대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종단과 재단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인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학교를 경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 창달 및 포교활동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 동해중학교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중학교는 최근 몇 년간 외적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긴 하였지만 앞으



있습니다. 이러한 종립학교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책임도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종립학교로써 위상강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힘은 부족하지만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달리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종단과 재단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성美 조신화 원장**

여성美 100% 여성병원으로 조성하시니...  
여성美 한의원엔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안정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美 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일: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1TV “전문의 상담”

진주동 신시역3번출구 신인은행빌딩 30M 지하점유구 20M 1분거리 임방동행 STARBUCKS 여성美한의원 강남역

생혈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지주파치료기 작온욕기





# 지진해일 피해국 돕기 "자비의 탁발" 전국 확산



불교계는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해 '자비의 탁발' 행사를 지난 12일 서울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서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탁발에 앞서 열린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부처님께서 탁발수행은 수행자에게 독약과 같은 아편과 아집을 타파하는 길이 바로 탁발이며, 탁발은 보시하는 이에게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크다고 말씀하셨다"며 "이번 탁발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을 씻어내고 부처님께서 실천하신 나눔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며, 종단에서는 이러한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도 여러분들의 신행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웃을 돕는 종도들의 순수한 마음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국내외적으로 부처님 자비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연등국제 선원 지도법사인 부다다타(방글라데시)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자비행은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안을 것이며, 고통 속에 처한 많은 이재민들에게 크나큰 위안이 될 것이며, 오늘 거룩한 자비의 탁발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한국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비의 탁발행사는 조계종 대웅전을 출발하여 인사동을 지나 탑골공원을 돌아오는 거리에서 진행됐다. 탁발행렬을 지켜본 시민들은 스님들의 발우에 보시금을 넣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날 두 시간동안 거행된 탁발에서 모인 성금은 3천여만원으로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남아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나타났다.

한편 총지종도 한국불교 종단협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으며, 남아시아 이재민을 돕기 위한 행사는 이날 말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거행되었다.

## 제3회 국제불교영화제 1월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 조계종 스리랑카에 복지타운 조성 콜롬보 인근에 고아원, 유치원건립

조계종이 최근 지진해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고통받는 스리랑카에 고아원과 유치원을 갖춘 복지타운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번 복지타운은 스리랑카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조계종이 운영하는 것으로 스리랑카 정부와 실무자들에 들어가 오는 2007년경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시설 실무자들을 스리랑카 현지 불교종단과 함께 추진해 명실상부한 불교복지시설로 만들며, 복지타운 건립과 운영은 조계종이 관리하며, 현지인 절반과 조계종 관계자 절반을 이사진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지원스님은 "조계종마을 건립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종단에 우호적이며, 복지타운 건설을 통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국제불교영화제(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이하 IBFF)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안지역에서 열린다.

'제 1회 IBFF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페스티벌(San Francisco Bay Area Festival)'이라는 별칭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IBFF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시)순회 영화제'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베이 에어리어(Bay Area)라고 불리는 인근 해안지역 3개 도시를 순회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1월 2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2월 3일 버클리까지 거쳐 2월 10일 샌 라파엘에서 폐막한다.

17일 동안 열리게 될 이번 영화제에는 미국, 독일, 일본, 태국, 한국 등 전세계 12개국의 영화관계자를 포함해 2만 여명의 관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막작인 릴리아나 카바니(Liliana Cavani) 감독의 '밀라레빠(Milarepa)'를 비롯해 짐 자무쉬 감독, 조니 뎀 주연의 '데드 맨(Dead Man)' 등 4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포커스 온 코리아(Focus On Korea)'라는 순서를 통해 '마음의 고향(감독 윤용규, 1949)', '화염경(감독 장선우, 1993)',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감독 정지영, 1991)', '달마야 놀자(감독 박철관, 2001)' 등 한국영화 5편이 선보이게 된다.

이밖에도 영화제 기간 동안 현대 사진 작

가들과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의 사진전, 토론회 등 부대행사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 불교인구 3명당 1명으로 증가세 40에서 50세 종교인구 커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57명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인 중 불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대표 이동원 목사·이하 한미준)이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만 18세 이상 전국(제주 제외) 남녀 6,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57%로 6년전(52.8%)에 비해 4.2%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이중 여자가 63.8%로 남자(50.1%)에 비해 많았고 특히 40세 이상 여성(71.8%)과 50세 이상 여성(71.9%)의 종교인구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62%, 대구·경북이 58.8%로 영남권이 종교인구가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이 57.2%로 그 뒤를 이었다. 종교별로는 불교가 26.7%로 우리나라 종교인구 3명당 1명이었고 개신교 21.6%, 천주교 8.2%, 기타종교 0.6%로 나타났다. 종교별 증감률에서도 불교가 6년전에 비해 3.2%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개신교는 0.9%, 천주교는 0.7%에 그쳤다. 불교는 1984년 18.8%에서 20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아함경 이야기

### 천한 사람①

이것도 부처님께서 마가다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큰 아침에 의복을 단정히 입고 발우를 들고 탁발을 하러 왕사성의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왕사성에는 앓기카 바라다바자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바라문도 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의 저택 가까이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그 바라문이 섬기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공물이 바쳐져 있었습니다. 앓기카라는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것을 보고 "사문이며, 그곳에 멈춰라. 천한 사람이 신성한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사성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바라문들의 기세는 대단해서 왕들 이외에는 감히 바라문에게 맞서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계급 제도가 엄했기 때문에 바라문들은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늘 사회의 최고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렇게 불을 모셔며 제사지내는 바라문들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라문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께 함부로 천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며, 그는 참으로 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천한 사람이 되는지 그는 알고 있는가?" 그러자 바라문이 말했습니다. "사문이며, 나는 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또 어떻게 해야 천한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 사문이며, 그는 나에게 말해보라."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며, 그렇다면 내말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보라. 이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천한 사람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가진 자, 원한을 품은 자, 혹은 위선을 행하는 자,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 아첨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천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자, 살아있는 생명을 자애로 대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자가 천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괴롭히고 해치는 자, 재물에 인색한 자, 나쁜 욕심이 있는 자, 고집이 센 자, 아부하는 자, 남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와 같은 자를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천한 사람의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천한 사람의 종류를 많이 들고 계시는데 부처님의 기

준대로라면 요즘은 거의가 다 천한 사람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런 천한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는 속성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특히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많은 고급공무원들은 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증인으로 물음을 받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자, 이와 같은 자가 천한 사람이다.

사회의 지도층에 있거나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공익을 앞세워 일해야 할 사람들이 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증인으로 나섰을 때 온 국민이 다 알만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내뱉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도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한 사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천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러러보는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지위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도 천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부유하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

### 재물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자

###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천한 사람

천한 자를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장인, 장모에게 해를 가하거나 말로써 괴롭히는 자, 이와 같은 자를 천한 사람이라고 한다.

요즘 나이트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형제 남매간에 서로 때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연로한 부모가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떨어져 살다가 돌보아 이 없이 쓸쓸히 죽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멀리 내다버리고 오기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이 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천한 정도를 넘어서서 지옥에 떨어질 흉악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늙으면 똑같이 받을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인륜을 역행하는 짓을 합니다. 그것이 다 악연이 이어진 탓이겠지요. 업력의 힘이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가 봅니다. 중생들의 그 얽히고 설킨 악연의 실타래를 부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결식을 하시면서 진리를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러한 악연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자비심으로 오늘도 바라문에게 욕을 들으면서 탁발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예로 드신 천한 사람들이 요즘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화령정사/법원장 연구원)

(다음호에 계속)

#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 ※불교방송 강좌 안내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방송시간

오전 6시 5분~6시 25분

오후 9시 5분~9시 25분(재방)

▷강사 : 화령 정사

▷방송기간

총기33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청주 FM 96.7MHz
	부산 FM 89.9MHz	춘천 FM 100.1MHz
	광주 FM 89.7MHz	안동 FM 97.7MHz
	대구 FM 94.5MHz	포항 FM 105.5MHz



아제아제바라아제

# 삼화리의 천년 송(松)을 생각하며...

지리산 뱀사골 자락을 거칠게 내달리던 만수천 물결이 삼정산을 감아 돌아 엄천강으로 모습을 바꾸는 곳이 바로 남원시 산내면 삼화리다. 그 마을길 소리를 비집고 산 쪽으로 뻗은 농로를 따라 이십 여분을 걷다보면 행인의 발길을 붙잡아두고 그로 하여금 감탄이나 경외심을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대한 소나무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현존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압도하고 있지만 결코 거칠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그저 미풍에 몸을 맡겨두고 있는 천년 노송. 장정 네 다섯 명이 양팔을 벌리고 둘러서야 그를 온전히 안아볼 수 있을 정도의 굵은 몸에 감춥처럼 단단해 보이는 껍질을 두르고 있는 그 노송 앞에 서면 그가 버려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두터운 생명의 심연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기에 은연중에 자만해져있던 마음이 존경할만한 인내로 긴 시간을 버텨온 그 생명체 앞에서 잠시나마 소박한 경외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간간히 침묵하신다. 말씀을 잊지 못하시는 것이다. 그 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내 눈가를 떨게 했다.

지울스님의 단식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일이었다. 천성산에 깃들어 살고 있는 듯 생명들을 개발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했던 환경단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떠나갔고 그럴수록 지울스님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일이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공사강행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패배가 불보듯이 뻔한 싸움에서 스님은 오직 혼자자 되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이제 그분의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를 막바지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뜻있는 종교인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자리를 함께 했다.

사실 천성산 문제는 지울 스님만의 문제가 아닌 양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어쩌면 그 문

제는 우리 인류문명의 근본적인 갈등구조에까지 그 뿌리가 내려가 있다.

기술발전은 통한 문명의 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집단적인 자기실득과,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희생은 필수적이라는 집단적인 자위심리가 자연과 그 속에서는 못 생명들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덮고 있기에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될 생명존중의 화두를 슬그머니 내려놓고도 둔감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천년을 살아온 노송 앞에 서서 어떤 무언가 강력한 파장을 느끼듯이 좀더 집약적인 생명체로서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이다.

한 생명이 한 지역의 못 생명들을 위해 스스로 꺼져가려고 하는 지금 사회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그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르는 지울스님의 주장을 무시한 채로 그를 떠나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러기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생명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을 간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선미/인드림 생명공동체 총무국장)

## 천년을 살아온 노송 앞에 섰을 때 무언가 강력한 파장을 느끼듯이 좀더 집약적인 생명체로서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것이다

출근이 늦어진 월요일 아침이었다. 머쓱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여니, 분주한 느낌이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도 열어보기 전에 사무처장이 내게 말한다. '지울스님과 관련하여 지난 밤 긴급 논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범종교적으로 지울스님 관련 참회 단식기도'를 갖기로 하였다. 그래서 도법스님과 문규현 신부님, 기독교환경연대의 양재성 목사님이 현재 서울로 오고 계신단다. '천성산 살리기의 지울스님께서 3차 단식을 시작하신 지도 여든 90여일 가까이 되었고 최근 연락까지 끊어서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던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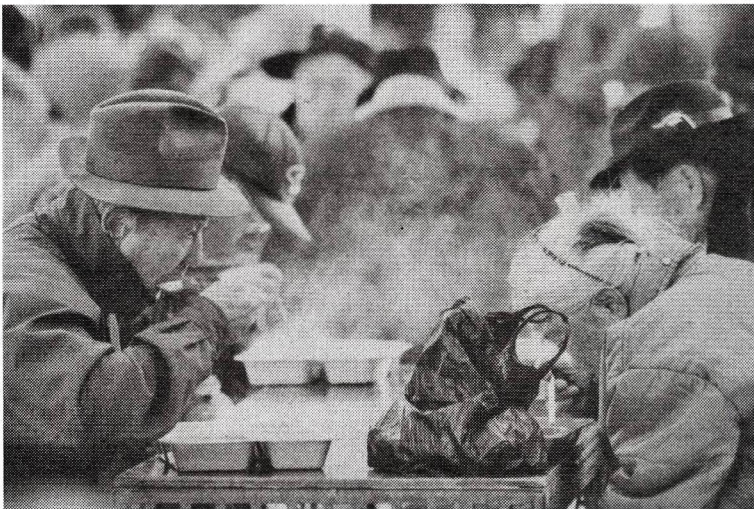
오후 3시! 스님, 신부님, 목사님, 원불교의 교무님 등 많은 분들이 조계사로 모여들었다. 그분들은 이 참회 단식기도가 어떤 목적이나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지울스님의 꺼져가는 생명이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운 나머지 오늘 한 자리에 모이신 것 같다.

"오늘, 한 수행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나와 나, 종단, 우리 사회 이 모두가 보이는 태도에 대해, 정말 이래도 되는지 깊이깊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였지만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게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몇 분께서 말씀을 이으셨는데 말씀하시면서

# 조계종 노인요양원, 수림장건립박차

## 지역주민과 함께한 사회복지 실현



올유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들은 교구와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 중에서 지자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중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이다. 노인요양원 건립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교구본사가 함께 재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장불사로 지난해 10개 교구본사가 요양원 건립을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몇몇 사찰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올해 착공의사를 밝힌 교구는 3~4곳 정도이

며, 용주사는 이미 부지 선정과alay영계회 등을 마무리 짓고 착공 날짜만을 저울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고운사도 올해 말 200여 평 규모로 노인요양원 완공을 목표로 2월 공사를 시작한다. 이외에 다른 교구들은 대중의 뜻이 모아지는 대로 노인요양원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인요양원은 약간의 실비를 받는 유료요양원 형태로 운영된다.

은혜사는 올해 지자체와 연계해 수림장(樹林葬)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림장은 장례를 산골로 치르는 새로운 형태의

장묘 방법으로 묘지와 남골로 인한 국토 잠식과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묘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는 지역 친화적인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의 대부분이 지역민 혹은 지자체와의 연대 사업으로 꾸려지고 있다. 지역연대 사업은 명상센터 및 생태·문화마을 조성이다. 생태 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생

명, 평화, 나눔'이라는 주제로 제 2회 천년송길 걷기 대회를 개최해 지역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제 2회 '오대산 불교문화대축제'도 지난해의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지자체, 지역주민, 사찰이 하나가 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고운사는 산문에서 도량까지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하고 산문 밖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야생화 소공원을 조성한다. 또 마곡사는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연수와 기부, 실직자, 대학 입학생 등 특정한 계층을 위한 자비 명상 수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진각종 심인당, 지역문화중심지로 출가승제도, 서울근교 총본산건립

진각종 총리원장 효암정사는 1월 20일 총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각종의 신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진각종은 "출가승제도 복원은 종조의 유훈을 실천하는 것이며 진각종의 흥망성쇠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불상봉안에 대해 심인당에 봉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묘전이나 특별한 곳에 봉안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한 심인당을 지역사회 교육, 문화, 복지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종단차원의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강원도 홍천에 제2연수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하곡월동에 있는 총본산은 수평환경이 저하되어 서울 근교에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며, 한국기독교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기독교 종단과 교류를 확대하고, 인도에 유학생과, 스리랑카에 어린이집 건립을 계획중이다"라고 밝혔다.

효암 총리원장은 오는 4월 4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며 재임여부는 종의회에서 결정된다.

##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봉헌" 발언 부적절 재판부, 위법성인정, 원고패소판결

"피고 이명박의 '서울 봉헌' 발언 및 행동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단독 재판부(판사 고종영)는 1월 13일 속개된 이명박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 봉헌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서울 봉헌 발언으로 인한 108명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 기각 판단의 요지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기독교편향 언행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정신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 봉헌 발언' 및 극단적인 기독교 편향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지역의 불자와 시민 108명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기각 결정

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인단 108명과 이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나리종합법률사무소 소속 김경규 변호사는 "서울 봉헌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증인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혹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108명의 소송인단은 "지난해 5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독교인 청년들의 기도회에서 시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서울시를 봉헌하셨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망발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시장을 상대로 한 명당 10만원씩,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108명의 소송인단과 김경규 변호사는 기각 결정문을 받아 원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관련 법규에 따라 2주 내에 항소할 방침이다.

## 시민단체, 천성산, 지울스님대책마련 지울스님 외면하는 정부규탄



민중노동당과 녹색연합, 한국어성단체연합,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1월 26일 청와대 인근에서 천성산문제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을 반대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92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지울스님의 의지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천성산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개발 만능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는 20여분을 단축하기 위해 수천년 동안

만들어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원칙과 절치를 저버리고 임기응변식의 말바꾸기와 타협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하는 이 시대의 모습에 우리도 참회하고 천성산 관통터널을 저지하고 지울스님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초록의 공명'이 증폭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일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남자활후전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근로능력은 있으나 기술력, 자본력 등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 주요 사업

- 산후 및 간병인사업  
저소득 환자 및 산모를 위한 간병인 도우미 무료 파견 (병원 및 가정으로 주 3회 ~ 5회 서비스 제공)
- 봉제사업  
전문교육을 통해 습득된 기술력으로 자활 및 취업
- 토탈크리닝사업  
일반가정, 공공기관, 빌딩 등 전문적인 청소대행
- 차량 출장광택 및 세차사업  
일반차량 및 관공서 차량 출장 광택 및 세차
- 기타사업  
취업알선 창업지원, 지역사회지원사업, 문화교육사업, 지역조사사업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 강남자활후전기관

서울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3454-0164, 전송 3454-0166



# “자연은 생명의 근원”

## 한국불교 종단협 신년하례법회



한국불교 종단협(회장 법장)은 지난 1월 19일 조계사에서 총지종 우승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불교계 각종단 대표, 문화관광부 정동태장관, 열린우리당 임제정의원, 국회 정각희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올유년 종단협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에서 “안녕과 행복은 기대로만 성취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계획과 실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대승적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며 민족의 대화합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갈망한다.”고 밝히며, “금번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보며 하늘은 사사로이 덮지 않으며, 땅은 사사로이 신지 않으며,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이지 않는다고 했듯이 자연은 사사로움이 없는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불교계가 앞장서서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구호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동체대비의 나눔으로 전국적으로 탁발모금과 의료 및 구호지원단을 모집하여 대승적 인류애를 살리자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구호지원 대국민 동참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불교계가 그동안 사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한국불교 종단협은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각 종단별로 위로금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위대한 생명의 근원으로년부터 자연환경 파괴행위를 멈추고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의술로 고통받는 사람 구원”

#### 정각사 교도 23명 무료 백내장 수술

“사막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부산시 덕천동에 위치한 김안과(원장 김종환, 김경우)는 지난 1월 23일 부산에 위치한 총지종 정각사를 방문하여 교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백내장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무료 백내장 수술

을 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원장은 “자신들의 선행은 당연한 일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백내장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평소부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침 정각사에 지인이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일을 하기로 했다”며 “크지도 않은 선행에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말했다.

### 신행체험 18

## “마음에 끌려 다니지 말라”



성정화(일지승) 보살  
(밀행사 신정회 회장)

우리 밀행사는 밀양시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총지종 종조님이신 원정대 성사님의 생가와 불과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진왜란시 꺼져가는 나라를 살리고자 구국의 선두에서 승병을 지휘하신 사명대사님도 밀양분이시고, 조선조 학문의 거두이신 집필체 김종직 선생님의 고향이며, 현재 총령이신 효강 대종사님도 이곳 밀양분이십니다.

제가 밀행사에 인연된 동기는 27년전

그 때 스승님은 “우리 부처님만 믿고 공부한다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 하시면서 7일 동안 불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7일을 마치고 나니 49일을 다시 정해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신봉한 일이었습니다. 5년이나 병원을 돌며서 치료하고 수술도하곤 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병이 5주만에 말끔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4주째 되는 날 밤에 열이 고열로 올라 밤새도록 엮고 지새다가 새벽에 아들을 쳐다보니 눈에서는 시뻘건 피고름이 뭉게뭉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피고름이 나오고 나니 아들의 눈은 가늘하늘처럼 맑고 청명했습니다. 그 때도 스승님께서 100일을 더 열심히 불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 하던 중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 날인데 꿈속에 ‘백발노인 한분이 오시더니 아주 곱게 닦은 나무 회사고 한 개를 주셨는데, 두개의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두 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

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공부할 때 공금증이 있거나 걱정이 일어나면 스승님과 의논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책과 경전을 읽어왔지만 우리 총지종의 불교총전, 밀교장경, 종조법설집은 세계 어느곳에 내 놓아도 뒤떨어지지않는 훌륭한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훌륭한 경전을 마련해주신 큰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끌려다니지 말라.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 마음은 사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약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말라.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며,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아래한도 되고, 마음이 하늘

### 밀행사에서 막내의 눈병을 불공으로 고침

#### 친정인과 시집인과는 서로 다르지 않고

####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상과 지옥이 갈라짐

막내의 눈병으로 5년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차도를 보지 못하고 걱정하던중 정진초등학교 김선생님 사모님께서 10여년전 밀양의 어느 한 절에 다녀오신 후 완쾌하신 것이 문득 떠올라 막내를 들쳐 업고 찾아가니 그곳이 바로 밀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스승님은 제가 성장한 한 동네 선배 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몰라봤던 스승님께 제가 누구집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의 사촌언니와도 아주 친한 친구사이였고 성장할 때는 아주 착하고 원만한 성격의 처녀로 알려졌던 그 분, 바로 시각화 스승님이셨습니다. 스승님의 성장환경과 가정환경을 볼 때 저분의 말씀이라던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니, 우리 막내아들이 눈이 아파서 왔습니다”라며 매달렸습니다.

니 찬란한 금빛 광명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천지가 빛났습니다.

그때의 황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선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을 지으면 죄를 받는 인과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바쁘겠지만 불공만큼 바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느꼈으며 종생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쳤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수행생활은 시작되었고, 밀행사 초대 시각화 스승님, 열반하신 법상원 스승님, 밀공정 스승님, 지희심 스승님과 지공정사님, 그리고 현재 김강륜 스승님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가르침으로 감사와 감탄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희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친정인과의 시집인과는 천형 저울로 달아도 한눈금도 기울지 않는다.”는 말씀은 잊혀지지 않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 절에 다닐때는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각자님과 식구들의 반대때문에 수행생활하는 데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공한 덕본인지 각자님은 모든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9급에서부터 시작하여 밀양시청 국장직을 역임하셨고 후진양성을 위해 작년에 명예로운 퇴진을 하셔서 지금은 제가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들 3남매도 이제는 모두 결혼을 해서 자기 할 일에 충실하고 막내도 군 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행사 신정회 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도움을 주시는 보살님과 부처님의 지비광명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 나도 한마디

최근에 서울 우이동 보광사에서 남산당 정일스님 문도회와 보광사 주지 현중스님측과의 사찰 운영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양측은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고 삼파 폭력, 방방이를 들고 사찰을 점거하고 서로간에 폭력을 행사하여 사찰은 전 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광경을 보며 불교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이러한 광경은 몇년 전 조계사 총무원에서 발생한 스님들간의 폭력사건을 연상하게 하였다.

많은 사부대중들을 모아 놓고 번뇌와 고뇌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

는 중생교화와 세계평화, 화합과 단결을 주장하며 매일 매일 입이 마르도록 설법을 하였고, 보살들은 큰 스님이라며 존경과 경애를 표했던 분들이 마치 강패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말과 행위가 거짓이었으며, 가면을 쓴 악마가 아니었다. 생각 해본다.

### 서울 보광사 폭력사태를 보며

우리는 모든 법회 때마다 항상 불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례를 한다. 이러한 삼귀의를 하는 것은 불법, 승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들이 앞장서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스님들을 존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물론 몇 사람의 일로 전부를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전체를 구멍물로 만들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님들은 정당한 불교수행자들을 대표하며,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은 청정한 불교 수행공간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직자들의 수행이 앞서야 할 것이며, 엄격한 계행과 수행력을 밑바탕으로 청정하고 화합된 생활을 유지할 때 신도들은 승보에 귀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철/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이는 기업

책임을 이는 기업

인정 받는 기업

봉사를 이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 경영이념(經營理念)

상 호 존 중

기 술 혁 신

고 객 만 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 대승적 아름다움이 물결치는 밀법도량!

자성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빌딩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찬 서울의 도심거리를 기차를 타고 벗어나 밀양에 도착 하니 근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박시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고요히 넘실대는 남천강의 물결기를 타고 겨울의 살얼음을 지나 영남루에 다다르며 아량의 순결함과 굳은 절개가 아연히 가슴속에 베어온다.

밀양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탄생하신 곳이며, 또한 시명대사가 중생구제를 일구었던 곳으로, 상구보리와 허화중생의 밀법을 전도하는 중심에 서있는 밀행사를 찾아가본다.

### 밀행사의 연혁

밀행사는 총기 2년 밀양읍 내이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밀양선교부로 개설하였으며 총기4년 밀행사로 개칭하였다. 총기11년 6월 신축건물을 착공하여 총기12년 4월에 헌공복사를 하였다.

초창기에 시각화전수가 초대 주교로 부임하여 밀행사를 일구었으며, 하정정사, 법상원전수, 밀공정전수, 자공정사, 지회심전수가 교화를 하였으며, 현재는 금강륜전수가 주교로 재임하며 중생을 교화하고 있다.

### 스스로가 윤회의 주인공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죽은 지 사흘만에 되살아나 승천하였다고 하여 부활절이란 이름으로 성대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활은 어느 특정한 자만



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실상이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평등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삶은 단지 한 시기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번데기로 변했다가 다시 나방이 되는 것처럼 삶의 길고슬이 변화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윤회는 육신과 무명에 쌓인 업식(業識)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 육체적인 주인 없이 무명에 가려 업식은 윤회의 근원을 끊어 해탈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육도(六道)윤회로써 불법에 의하면 사람의 생은 시시각각 윤회 중에 있으며, 단지 빠르고 늦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 늦은 변화를 생멸 혹은 번이라고 하고 빠른 변화를 윤회라고 합니다. 중생은 삼업이 짓는 힘, 즉 업력에 의해서 시작과 끝이 없는 생명의 흐름이 형성되며 하늘이나 사람, 아귀, 축생 등 여섯 가지의 다양한 생명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육도윤회한다고 합니다. 육도윤회의 깊은 도리는 우매한 중생은 믿지 못하므로 옛사람이 "경정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윤회는 결코 신앙의 체계나 이론이 아니며 더욱이 인생의 병혹함을 피하기 위한 무정의 최후의 재판, 즉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윤회는 전생과 내생을 해석하는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윤회를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윤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지지 못하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윤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



을 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와 윤회는 결코 절대적인 신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조물주라고 해서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뒤바뀐 가지가지 무명의 업식을 불러일으키고, 그 업식이 천차만별로 생사고락의 과보가 나타나게 합니다. 어느 여섯 살 난 신동의 수학적 재능을 대학교수들조차 따라갈 수 없는 사례가 있는데 그의 천부적 재능은 결코 금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생부터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반 사람들은 전생부터 닦아 온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회의 사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삶은 결코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업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화나 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짓고 받는 것으로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유정중생(有情衆生)은 완전한 자유평등의 개체로써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창조하고자 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신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업을 은폐시킬 수도 없으며, 이러한 인과관 윤회 앞에 투기라든지 요행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

## 인과와 윤회는 자신의 업력에 의한 스스로가 조물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다

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조물주가 될 뿐입니다.

### 실천하는 나, 날마다 좋은 날

최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우울해 지기도 합니다. 왜 힘들다고 물으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생활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실이 매일 매일 혼란과 불안에 싸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삶의 행복과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두려움, 쾌락, 근심과 불안, 불행, 우울, 사랑, 고통, 슬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은 또 세월을 한 해 해 보내면서 아주 둔해집니다. 점차로 마음을 제대로 보는 힘을 기르지 못한 채, 오히려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닌, 마음 밖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도둑은 선사들은 불입문자를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인 기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으나 인생의 주체적인 나를 바로보기 위해서는 책이 아산만 높아가고, 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곳에 중생의 근심, 불안, 외로움, 절망, 슬픔 그리고 고통이 모두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행동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책임은 이 사회나 정치가, 또는 지식인에 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찬탄할 것도 많고 또한 인생살이에는 고통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닳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간에 고통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닦는 일, 그리고 완전한 자비, 사랑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안타까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정신적인 안정과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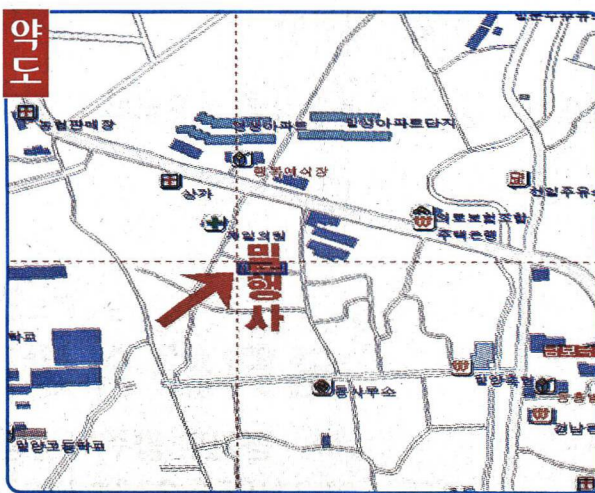
행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정되고 고요하면서 따뜻함이 충만된 세계,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 마음속의 변화를 잘 관찰하는 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 앞에 아니 이미 자기 옆에 와 있는 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저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소 : 경남 밀양시 내이동 701-11

전화 : (055)354-3387



## 인터뷰

### 밀행사 주교 금강륜 전수



금강륜 전수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님이 젊은 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저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성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처님과 친근을 하게 되었고, 아버님 어머니가 총지종과 인연을 맺어 스승으로서 교화를 하시게 되자 저의 행동 하나 하나, 삶 자체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전수님께서 교화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교화방법 및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험이 부족하여 교화방법이 서툴고 미숙하지만 따사로움이 감도는 서원당을 만들기 위해 보살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늘 가까이 하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생활 그 자체가 불법이고,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히는 마음을 참회하고 육행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에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제도라는 것은 첫째도 자비요, 둘째, 셋째도 자비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보살님들과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시고 어려운 병고를 해탈시키기 위해 동고동락 하시면서 자비로서 아무만져 주시는 모습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작고 하신 청신화 스승님의 항상 자비하신 마음으로 한조각의 콩이라도 베풀고 교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틈에 제 자신도 모르게 몸에 베어 저의 삶에 교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비로서 베풀고 보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거짓과 가식적인 행위, 분별심,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전에 또 종교단체에서 "내 탓이요!" 하면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존경하고 높임으로서 내 자신이 대우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후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세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한 중생들의 마음이 삼독심(탐,진,치)에 물들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불법에 인연을 맺어 금생의 업이 지중할지라도 내 자신의 거울, 진정한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을 깨쳐서 나를 한껏 성숙하게 하고, 나를 낮추면 상대가 살아나듯 삼독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행한다면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짧은 수행기간 혼자서 교화를 하다 보니 모든 것이 미숙하고 힘들지만 보살님들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시 덕분에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 지어서 "과" 받는 과보 속에서 위험한 신호가 오는 것도 모르고 질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노란 신호등이 경고신호를 해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고, 옆도 보고, 뒤 돌아 보면서 내자신의 인연의 업을 찾아 순응하여, 한번 쉬어가면서 나를 삼독심에 물들게 한 원인을 찾아서 마음을 비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바쁜 생활속에 쉬어가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 빨간 위험신호등이 켜진 것도 모르고 달려가서 나쁜 결과를 받은 "과" 그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것을 비우기 위해 참회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비가 내려도, 미움과 원망심으로 업을 짓는 것보다 착한 마음으로 복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살님들과 내 자신의 업을 찾아 나를 바로 보고, 하심하고, 참회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이 지은 복덕으로 자녀들이 서원당을 찾아오고 부처님과 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할 때 더욱 보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밀행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법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나와 주위 모두를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나라에서 벗어나지를 못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법을 깨쳐서 상대방 원망보다 나 자신을 찾는 공부를 통해 진리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또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우리 총지종의 법은 생활법 그자체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이기심으로 물들어가는 이 현실에 자기도 이롭게 하고 상대방도 이롭게 하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의 이웃,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분이라도 제도하여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누리게 하고 은혜로써 복덕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음마니반메흠

